순천정원박람회, 개장 84일 만에 500만 관람객 달성

500만번째 입장객, 성남시에서 온 이경옥씨 가족 "너무 행복"

내달 1일 오천그린광장서 사전 응모자 대상 500만 경품 추첨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23일 오후 2시 14분에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했다. 개장 84일 만에, 최종 440만 명의 관람객을 확보한 2013정원박람회의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이날 순천만국가정원 호수정원 나루터에서 500만 번째 입장객을 맞이하는 행사를 열었다. 라퍼커션의 시원한 타악기 연주로 시작된 행사에는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함께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과 정병회 순천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500만 번째 입장객은 성남시에서 가족여행으로 순천을 방문한 이경옥씨 가족이었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과 정병회 순천시의장은 500만 번째 입장객에게 쉴랑게 숙박권과 정원드림호 탑승권, 100만 원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해당 순천사랑상품권은 양운승 명성사우나 대표가 500만 관람객 돌파를 축하하며 후원해왔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짧은 기간 내 500만 명 관람객이 오실 정도로 큰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남은 기간 여름 휴가지로 가장 멋진 정원을 보여드리겠다. 개울길광장, 빙하정원, 그린아일랜드 등 여러분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 오셔서 더위도 날리고 새로운 에너지도 얻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해 온 직원들과 시민, 그리고 적기에 예산 지원에 힘써온 시의회에도 감사를 표했다.

이경옥 씨는 "순천에 계신 부모님을 뵙기 위해 가족여행 차 정원박람회를 찾았는데 뜻밖의 행운을 얻게 돼 기쁘다. 기대 이상으로 잘 꾸며진 정원과 따뜻한 분위기까지 더해져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직위는 500만 관람객 돌파를 기념해 대형 경품 추첨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다가올 7월 1일 오후 7시 전후로 오천그린광장 상설무대에서 500만 경품 및 현장 경품 추첨이 진행될 예정이다.

500만 경품 추첨은 국가정원 동문과 서문, 남문 그리고 순천만습지와 오천그린광장에 위치한 응모함에 사전 응모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직위는 추첨에 의해 1명에게 아반떼 모던 자동차를 선물한다.

그 외 현장 경품으로는 쉴랑게 숙박권(1명), 자전거(1명), 제습기(1명), 박람회 입장권(10명) 등이 있다. 현장 경품은 추첨일 당일, 행사 현장에 자리한 분들에게만 증정한다. 현장 경품 추첨함은 24일, 오천그린광장 입구 일원(종합안내소 맞은편)에 설치된다.

한편 모든 경품 추첨행사가 끝난 뒤 오후 8시 오천그린광장에는 SES 출신 가수 바다의 뮤지컬 갈라쇼가 펼쳐진다. /순천=조순익 기자

보성, 장내 기생충 감염 양성자 무료 투약 실시

보성군은 26일부터 기생충 감염 양성자를 대상으로 치료제를 무료로 투약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보성강 유역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간흡충 등 각종 기생충이 토착화된 지역으로 매년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보성강, 주암호, 저수지 등 수변·수계 지역 주민 557명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5명(1%)가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으며, 검출된 기생충은 2종으로 '간흡충' 3명(0.54%), '참굴큰입흡충' 2명(0.36%)의 감염률을 보였다.

보건소는 감염 양성자들에게 직접 연락 후 무료로 치료 약을 처방하고 복약지도 및 민물고기 생식 습관 변화를 위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례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참가

향우회 귀농귀촌 상담·도시민 유치 나서

구례군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3년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 유치에 나섰다.

이번 박람회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장년층들에게 창농의 희망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위한 행사로 국민일보가 주최했다.

군은 지난 6월에 열린 재경 구례군 향우회 한마음 큰잔치에 참가한 향우 회원들과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등록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을 대상으로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개최를 알리는 맞춤형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군은 농촌 빈집 활용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구례 정착 보금자리 사업과, 10개월 귀농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과정 등 단계별 지원정책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구례의 농·특산물 가공품 전시와 주요 관광지 홍보 등을 실시했다.

김순호 군수는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박람회에 참가해 우리 군을 홍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곡성, 군민·공무원 대상 '행복 인터뷰' 시작

총 6회 진행…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

곡성군이 지난 21일부터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 심층 인터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총 6회 걸쳐 진행된다.

군에서는 지난 4월부터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을 위한 맞춤형 행복 지표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행복 인터뷰는 군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곡성의 행복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행복 지표 개발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1회차 인터뷰는 곡성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서별로 최소 2명씩 인터뷰를 진행해 총 5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많은 민원실, 주민복지과, 곡성의료원 등의 공무원이 참여해 군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오는 28일에는 기획실, 인구정책과 공무원을 비롯한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직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2회차 인터뷰가 진행된다.

7월에는 4회에 걸쳐 전 읍면을 방문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나선다. 군민 삶의 현장에 들어가 군민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와 곡성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뷰를 완료한 이후에는 8월 1일에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해 인터뷰 결과를 공유하고, 데이터 분석과 내외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행복 지표의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된다.

군에서는 8월 말에 최종 행복 지표가 완성되면 군민 행복도 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 행복 정책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곡성=황상연 기자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영화 '사랑의 고고학' 상영

영화 '사랑의 고고학'의 이완민 감독과 옥자연 배우가 참석한 관객과의 대화 행사가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영화관에서는 열렸다.

'사랑의 고고학'은 사랑과 관계에 대해 갈등하는 고고학자 '영실'의 이야기를 담은 극영화다. 섬세한 연출과 연기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으며,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언급과 배우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영화 상영 종료 후 '관객과의 대화'는 순천대 문예창작학과 김영남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영화를 만든 이완민 감독과 순천 출신이자 드라마 <슈룹>, <퀸메이커> 등에서 최근 활발하게 활동 중인 옥자연 배우가 참석해 순천 시민들을 만났다.

옥자연 배우는 "순천에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있는지 몰랐다. 순천에서 '사랑의 고고학'으로 관객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하며, 관객들의 질문에 답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오는 7월 상영 사업을 준비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6월 말 미디어센터 누리집(www.scmedia.or.kr)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양,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해위험지역 점검

광양시는 지난 2021년 7월 6일 산사태 붕괴로 피해를 입은 진상면 탄치 재해위험지역을 지난 22일 주순선 부시장이 현장에 방문해 사전 조치사항과 주민대피계획 등 현장 점검을 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서승호 광양소방서장을 비롯해 마을 이장, 주민들과 만나 애로사항등을 청취하고 우기에 대비해 방수포 상태와 배수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주민대피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광양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조치하기로 했다.

주순선 부시장은 "올여름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호우시엔 반드시 현장 점검을 통해 배수 상태, 사면붕괴조짐 등 추가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김철우 보성군수, 휴일 장마철 재해위험지역 안전점검

김철우 보성군수가 25일 지역 내 재해 위험지역과 주요 사업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장마철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 군수는 이날 보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장마 대비 비상대책 회의에 참석한 뒤 지역 내 공사 현장·배수펌프장·주요 사업장·읍면별 취약지역·주택 인근 급경사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올 여름 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현장점검 이후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김 군수는 강조했다.

보성군은 마을 방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장마 6대 위험 예방요령과 침수 대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어떤 자연 재난에도 지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현황 보고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보성=장국도 기자